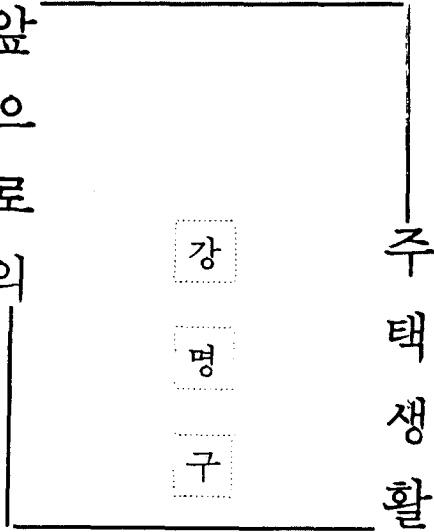


앞
이
벽
의



주
택
생
활

인류는 오랜 동안 지구의 진면을 점유하고 삶을 영위 하였으나, 지금은 「로컬드」로 인하여 지구 밖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때이다. 인류가 살아야 한다는 물질적 장치를 한 때는 지역적인 관습에서부터 용이하게 취하였던 것이었으나 현대는 도저히 손이 닿을 수 없는 정도의 복잡한 「디자인」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내가 무어라 공헌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문제를 앞에 놓고 한층 겸허(謙虛)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건축이란 것은 제 자체로서 극히 상상적으로 생각했는데 현대는 「매카니즘」이 격심한 때이므로 사회생활의 변동이 심한 시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시대와는 전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의 모빌리티(Mobility)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있어 중대한 과제인 것으로 본다. 현대는 기술의 진보가 비상하게 빠르다. 그 기술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것도 또한 가지 큰 문제일 것이다. 가령 「루넷싼스」시대에 있어서는 석조라는 정하여져 있는 수법밖에 없었다. 석조

라고 하기에는 지복할런지 모르나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켰는가에 있어서 2백년 혹은 5백년이라는 세월을 요했던 것이 현대는, 속한 속도로 진보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술을 어떻게 조화 할 것인가가 역시 절실한 문제로 생각 된다. 또 한가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디자인」 즉 예술적인 것으로서 회화나 조각 혹은 새로운 인티어리오 디자인(interior design)등의 것과 어떻게 조화하여 나갈 것인가에 있어 크게 구별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와 예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는 다양 다체의 드라이(dry)가 있다고 본다. 그런고로 등량인 에는 실패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등량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실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길고 긴 역사적인 실험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생각컨대 모든 것이 등량인 인것으로 생각되나 그러한 등량을 모름지기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지나치는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의 궤도 위에서 있는 크나큰 무브먼트(movement)로서 현대 건축을 생각하고 스태틱(static)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무브먼트 속에서 가령 새로운 움직임으로 사회 생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 속에 새로운 공간의 개념이 있는 단계에서 일단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현대 건축은 예술적인 것과 엔지니어링(engineering)적인 커뮤니틱(communitic)으로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즉 건축이란 누구든지 외적 압력에도 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완강한 구조의 건축을 고려하고 채광이 좋은 조건도 염려한다.

그러면서 살기 편하고 사회적인 것에도 대응할 수 있고 예술적인 것에도 어떠한 품격을 갖

추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건축의 최대의 목적은 어떻게 현대 사조 속에 밸런스(balance)를 맞추어 생활하느냐에 제일 중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건축이란 문제는 단지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 전체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먼저 가족제도를 생각해 보면 단혼 가족이 근대적 가족상인 것이다. 거기서 복합가족(複合家族)으로 생활하면 그것은 이미 반동인 것이며 동거한다는 것은 낡은 잔재임으로 단혼가족 건축만을 현대는 지향 한다. 그러나 한국, 특히 우리들의 생활 동향은 대체로 이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도 분별할 여지가 없다. 그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의 경우에 있어 대전 후로는 자립하여 자가를 이룰 여유가 없이 선조가 내려준 재산(건물)에서 부모와 같이 생활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활 할 수 있는 급료로 발전하면 어린이들이 생기어 못하게 되고 장년이 되면 이미 시기는 늦어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 되어 결국은 독립할 수 없게 된다.

80%가 이러한 생활 형태이므로 이러한 조건에서 일 평생을 살아온 경우 단혼가족이란 감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개가 어떠한 복합가족 제도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노인의 주택을 만든다는 현상은 극히 본능적인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집을 일방으로 제공하면 되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친밀감이 없어진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법 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 무조건 저항하는 의식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회생이 되었는가.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에 우리들은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힘차게 진취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편의 휴양을 제일 주의로 건축된 집에서 주부는 어둠 킥킥하고 추운데서 하루의 노동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과는 전연 다른 주택을 우리는 하루 속히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누구든지 주부의 의견이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위엄을 본위로 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어린이들이 들어가서는 안되었던 객실 본위의 집이란 첫째,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진 현대인 것이다. 현대는 좀 더 빠듯한 요구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혼 가족의 주부를 위주로한 집을 짓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단혼 가족을 위한 단혼 가족만이 즐길 수 있고 또한 편한 집을 가족 전체가 연구하고 설계하여 건축된 집 즉 가족 본위의 집이 오늘날의 주택의 제일 조건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가족의 생활 양식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주인은? 주부는? 어린이들은? 그리고 모두들 집에 있을 때 어떠한 상태로서 생활 하느냐에 있어서 가족의 단락, 휴식, 식사, 취사, 청소와 세탁, 욕아, 그리고 수면과 프라이비트(private)한 생활동이 어떠한 것이든지 전부가 제일 단편하고 생활을 즐긴다(enjoy)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가족 본위로서 생활 본위여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날 누구나가 회구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상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당신들의 생활에 진정 참다운 근대성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에 또한 중대한 포인트(point)가 있는 것이다. 지금 까치의 잠재적인 생활을 개방하는 데서 모던 리빙(modern living)은 발전할 것이다. 근대의 인간의 발전이 개성의 발전에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으로 설명되고 있다.

커다란 유리를 통하여 일광이 방 전체에 비

치고, 폭신평신했던 소파(sofa)에 쾌경(快輕)한 테이블(table), 그 안에서 서로 서로의 편한 자세로 서로 담소하는 사람들, 마루에 엎드려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 상상만 하여도 즐거운 이미지(image)가 떠오른다. 이와 같이 리빙 룸(living room)은 의자식의 유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사회적인 중대한 의미를 가져 오는 것이다.

식사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 일 손님이 있을 경우 잠을 자기 때문에 사용 못 하는 방등, 이러한 지금까지의 한국 주택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이 안 갔을 리 없다. 이러한 주택이 지금도 사용되며 또한 여기 저기서 건축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봉건적인 가족제도가 새로운 조류에도 불구하고 아직 잔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한국 주택이 사용하는데 있어 편하고 자유스럽고 작은 면적으로서도 해결된다고 하는 것도 돌이켜 생각하면 주택에 있어서의 개인 생활에 관계있는 부분을 희생 당하였다는 결과였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침실과 변소 욕실 등이 주택에 있어서 개인 생활을 포섭하는 것이라면 부엌과 세탁장은 가사와 노동의 장소이며 「리빙 룸」은 주택에 있어서 가족 일동의 생활의 장소이며 또한 외부와 연락하는 손님을 위해서도 가족과 사회를 결합시키는 장소인 것이다.

인간 생존의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인 것 처럼 따라서 건축 자체도 어디까지나 건강미가 결여(缺如) 되어

가장 능률적인 건축 즉, 그것이 근대 건축인 것이며 앞으로의 주택 생활의 근본 과제인 것이다.

그러면 가장 능률적인 주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첫째, 근대의 인간으로 길러주는 「모던 리

빙 룸」의 연구, 둘째 주부의 생활 시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주부들을 좀 더 피로에서 해방시켜주는 부엌과 식당과의 처리를 능률적으로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휴양, 안정의 목적인 침실은 주생활에 있어서 가장 독립적이며 사적인 성격의 것이므로 완전한 「프라이빗」이 요구되어야 하며 넷째 욕실, 변소, 세면장의 해결이 불충분하면 「모던 리빙」이란 영위 할 수 없는 것이니 만치 우리들은 좀 더 위생적이어야만 되겠다.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들은 하루 빨리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제상태와 생활 상태로서 따로히 어린이 방을 정하여 주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었는데 이러한 힘든 조건의 어린이 방이 비단 공부방 위한 방으로서만이 아니고 천성으로 놀고 싶어하며, 동무들과의 교섭, 혼자서의 수공예등, 어린이 생활의 전부를 자립적인 생활로 이끌어 주는 방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다음 여섯째로 주택에 있어서 가장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는 현관인데, 재래식의 봉건적인 것으로서 방문한 사람에게 자기의 신분과 재산을 과시하는 듯한 그러한 사람을 위압하는 현관은 폐지하여야 한다. 좀 더 명랑하고 간편하게 누구나 친밀 할 수 있는 현관이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다. 일곱째로 스토리지(storage) 즉, 광의 문제로서 주택 전체 공간의 이용을 세밀히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겠다.

이상 대체적인 구분의 단략(單略)한 설명이었으나 제아무리 사용 방법과 처리가 잘 되어 있어도 전체적인 통일이 없이는 형태도 보기 싫고 공비(工費)도 많이 들어 더군다나 전체적으로도 제통있게 사용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체적인 통일의 문제가 결국 설계의 문제인 것이다. 이 설계가 생활 양식을 「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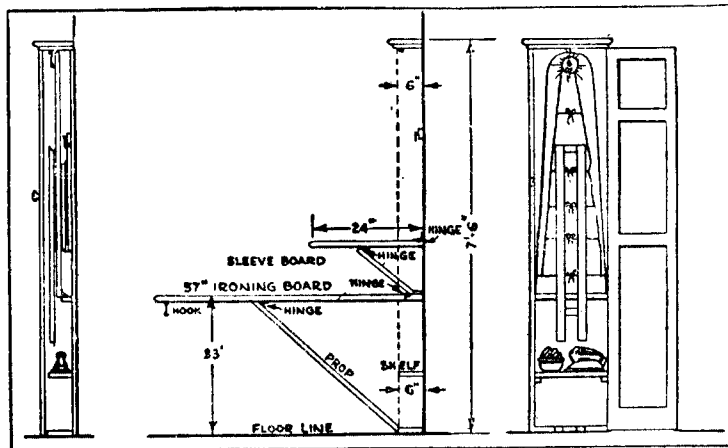
하느냐, 아니면 생활 양식이 건축을 규정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생활 양식의 콘벤쇼날(conventional)에 추수(追隨)하게 되면 건축은 발전 할 수 없다. 봉건적인 한국의 변모(變貌)로서 생활 태도에 변화는 하였으나 건축가 측(側)의 주택으로 어느 정도의 썬제션(suggestion)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리빙 키친(living kitchen) 또는 「고아씨스템」 온돌과 의자의 합리적인 결합, 신규재료와 기술의 구사로

서 이모저모의 발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확실히 비약적인 생활의 합리화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 대중의 경제 조건도 있고 노인들과 같이 살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으로서, 건축 패션(fashion)의 유행에만 치중하여 현실과 유리된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반도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적극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창조적 계획은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 끝 —

〈참고 그림 2〉 Space and Equipment for Homemaking PROGRAMS

벽에 붙힌 다리미판



Courtesy,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